



[잡언] 이케다 다이사쿠 선생님 사제의 격려
‘7·3’ 상승의 금자탑을 부탁한다 > 3면

[용기의 춤 개가의 행진] 청년부 벗에게
그대와 나는 광선유포의 동지이다 > 6면

[기획]
우리의 청춘대화② > 8, 9면

새로운 출발! 새로운 비약! 이체동심으로 ‘행복의 빛’ 비추며 전진

전국 148개 권 광포의 진용 구축!
(廣布)

동서울방면 진점권 결성식

‘청년의 달’ ‘사제(師弟)의 달’ 7월. 동서울방면 진점권의 탄생으로 새로운 광포의 진열이 갖춰졌다. 진점권(권장 이창구)은 지난 14일 한국SGI 남양주희망문화회관에서 결성식을 열었다. 결성식에는 동서울방면 진점권 4부 간부 및 진점권 선발 회원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참석했고, 남양주권 4부도 함께 참석해 결성식을 축하했다.

결성식은 이현직 조직사무국장의 인사발표, 새로운 다짐과 희망의 멜로디를 전한 진점권 4부의 합창, 방면 내 각 권의 축하영상, 청년부 활동 체험담 등으로 진행됐다. 새로 태어난 생명력으로 힘찬 비약을 시작한 진점권의 모습에 참석자들의 큰 박수가 이어졌다.

강태훈 지부남자부장은 수명을 사명으로 전환한 체함을 발표하며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선생님 지침을 새기고 ‘청년·미래총회’ 승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최효립 지부여자부장은 인간혁명 도전 승리와 함께 포교 승리의 체함을 말하며, ‘성실을 무기로 ‘청년·미래총회’ 승리와 창가학회의 교육 사상을 실현하는 ‘특수교사’가 될 것을 다짐했다.

박세경 권여자부장은 학회와 신심(信心) 그리고 스승 덕분에 성장한 원점을 말하며, 진점권 여자부와 女미래부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승리로 이끌어가겠다고, 박성영 권남자부장은 이케다 선생님 지침을 생명에 새기고 남자부·男미래부와 함께 연전연승의 역사를 만들며 비약할 것을 다짐했다.



미래부를 포함한 4부가 새롭게 태어난 듯한 기세로 다시 한 번 광포 전진을 맹세하며 신나는 울동과 함께 합창을 선보였다. 김기훈 기자



새롭게 탄생한 진점권이 지난 14일 남양주희망문화회관에서 결성식을 열고 청년부와 미래부를 선두로 다시 한 번 광포확대를 향한 전진을 다짐했다. 김기훈 기자 hoon@

김미란 권부인부장(방면·副부인부장 겸)은 광선유포를 위한 도전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으로 스승과 함께 기원 근본으로 도전하여 행복과 복음이 넘치는 진점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창구 권장은 4부 이체동심으로 ‘어본존 근본’ ‘사제불이’ ‘이체동심’의 청류가 흐르는 사제공전의 진점권으로 스승에게 보은할 것을 다짐했다.

김경희 부인부장은 결성식을 축하하며, 스승과 학회를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전한 모든 회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 “사제불패의 7월에서 영광의 ‘11·18’을 향해 1인 10명의 진정한 우인확대, 1명 포교, 어본존 반별 1체 수지에 도전하며 모두가 승리의 체함을 남기는 전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이사장은 새롭게 결성되는 조직에 대한 이케다 선생님 지침을 소개하며 “오늘 결성식을 맞이한 진점권과 동서울방면 4부 모두가 다음 세대 청년부와 미래부를 훌륭하게 육성하고 지역사회에 희망과 행복의 빛을 널리 비추면서, 영광의 창



이창구 권장

김미란 권부인부장

박성영 권남자부장

박세경 권여자부장

가학회 창립 100주년을 목표로 모두가 새롭게 출진한다는 자각으로 서로 응원을 보내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타의 행복을 넓히기 위해 중요한 세 가지로 ‘용기’ ‘진심’ ‘단결’을 말하며 “‘청년의 달’인 7월에 ‘지금이야말로 다 함께 승리하자!’는 용기를 끌어내 청춘대화, 행복의 대화로 커다란 비약을 이뤄가자”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광선유포는 흐름의 도달점 아니라 흐름 그 자체이며 살아 있는 불법(佛法)이 사회에 맥동하는 것입니다”라는 스승의 지침을 전하며, “일가화락도 광선유포도 그리고 청년·미래부 육성도 결국은 ‘한 사람’이기에 자신의 인간혁명으로 일가화락을 이루고 광선유포의 미래를 열어 영법구주(永法久住)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김희선 기자 hee@ / 편집 정성훈 기자 tophoon@



지난 16일,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 평화포럼 2022가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열렸다. 평화와 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폭넓은 인식을 함께 나눴다. 김기훈 기자

평화·지구·미래를 위한 대화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 평화포럼 2022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 연구회’(회장 하영애, 이하 연구회)와 한국SGI 학술부(학술부장 김대환)가 공동 주최한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 평화포럼 2022’(이하 평화포럼)가 열렸다. 지난 16일,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열린 이날 평화포럼은 ‘평화’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다.

하영애 회장은 개회사에서 “평화포럼은 두 분의 평화사상을 재조명하는 자리”라며, “평화포럼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평화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연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김대환 학술부장은 “조영식 박사와 이케다 선생님, 두 사람의 인연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인연으로 확장됐다” “두 분의 실천 철학은 하나의 큰 원류(源流)로 소급하고 있다. 그 원류를 더욱 명백히 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공고히 하여 세계평화를 이루는 큰 흐름으로 만들어 가는 계기를 부여한 것이 연구회다”라며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박명광 국회미래연구원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조영식과 평화운동’을 조명했다. 박 이사장은 “조영식 박사는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한 ‘휴머니스트’며, 그 정신이 세계평화를 향한 헌신으로 구체화됐다”라고 평했다. 이어 김용환 미국 조지메이슨대 연구교수는 ‘이케다 다이사쿠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주제로, 이케다 선생님이 인류사에 남긴 미래를 함께 열어간다는 ‘미래공창(未

來共創)’의 가치를 고찰했다. 김 교수는 ‘지구민족주의’에 따른 세계시민성 함양 ‘지속가능한 평화’ ‘조영식 박사와 함께하는 이케다 회장의 ‘미래공창대화’의 세 가치를 중요 핵심으로 꼽았다.

오영달 충남대 교수의 진행으로 열린 리더세션은 강희원 경희대 명예교수가 ‘평화라는 말에 대한 단상: 삶의 〈평화〉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평화란 평화에 이르는 길, 즉 평화는 그 수단의 성격이 평화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영윤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은 ‘핵무기 비확산, 국제정치 이론 그리고 평화제언’에서 핵무기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와 국제협력관계를 설명하고, 핵확산 금지를 위한 국제법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도희 숙명여대 문화예술대학원 강사, 김수환 동국대 북한학 박사가 토론자로 나서 이야기를 나눴다.

김지형 고려대 교수의 진행으로 열린 청년세션은 정세희 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연구원이 ‘평화를 향한 한반도 지속가능발전: 환경인식과 행동공유’에 대해, 김도연 경희대(국제학과4) 학생이 ‘교육을 통한 성장: 〈더 나은 나〉를 마주하고 〈더 나은 너〉를 만나다’를 발표했다. 이어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회장, 심상우 연구회 청년위원장 이 토론자로 나서 견해를 밝혔다.

조성연 기자 syjo@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to the future!

건설인의 자긍심과 굳은 마음으로

당사는 일반건축공사를 주업종으로 1996년 설립한 회사로서
무재해 및 책임시공을 목표로 올바른 건축문화 형성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깊은 신뢰로 책임을 맡겨주신 후의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는 건축시공에 있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설인의 자긍심과 굳은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